

“싸게 살 수 있어 좋지만...” 부족한 설명 등은 ‘아쉬워’

광주시농기계센터 미사용농기계 경매

내구연한 경과·노후 트랙터 등 45대
내일까지 나흘간...육안 확인 후 입찰
“시동 걸어보거나 추가 정보 있었으면”

“가격은 괜찮은데, 기계 상태에 대한 추가 설명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네요.”

6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광산구 농업기술센터 본관 주차장. 모자를 눌러 쓴 농민들이 중고 농기계 주변을 돌며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씨래, 로터리, 땅콩 탈피기 등 각종 기계 앞에 모인 농민들은 외관을 손으로 만져보며 이상 여부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불용 임대농기계 현장 경매’는 5년에서 최대 8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를 제외하고 올해 세 번째를 맞았다.

전날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매에는 트랙터, 관리기, 농업용 굴착기 등 13개 품목, 총 45대가 나온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 중 12대가 경매에 부쳐졌다. 각 장비에는 기계명, 입찰번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6일 오전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불용 임대농기계 현장 경매’를 실시했다. 이날 경매에 앞서 농민들이 광산구 농업기술센터 본관 주차장에서 중고 농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호, 규격, 제조사,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감정 평가액 등이 담긴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오전 10시 경매를 앞두고 농민들은 관심 있는 장비를 살펴본 뒤 입찰봉투에 기계명과 입찰번호, 희망가격을 적어 제출했다. 최고가를 써낸 이에게

낙찰되는 단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참여 자격은 광주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로 제한됐다.

입찰이 시작되자 농민들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냈다. 표정은 진지해졌다. 트랙터 한 대에는 다수의 응찰자가 몰리며 경쟁이 치열했지

만, 결국 635만원을 써낸 농민이 낙찰 받았다.

트랙터를 놓친 농민들은 “아이고, 저 가격이면 엄두도 안 나네”, “에이, 몇 만 원 차이로 떨어져버렸네”라며 각각 속내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는 “경매에 나온 농기계 가

격이 저렴하지만 설명이 부족해 구매 결정이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육안 점검이 전부였다. 센터 직원이 기초적인 설명은 제공했지만, 트랙터 등의 사용 시간이나 작동 여부처럼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게시돼 있지 않았고 몇몇 장비는 시동조차 걸어볼 수 없는 상태였다.

농민 이모(70대)씨는 “트랙터에 열쇠가 꽂혀 있지 않아 시동을 걸어 볼 수 없다. 최소한 작동 여부는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며 “또 자동차처럼 시간계가 있어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창동에서 온 김모(80대)씨는 “씨래나 로터리 같은 부착형 장비가 큰 문제가 없지만, 트랙터나 굴착기처럼 동력이 필요한 기계는 시동을 걸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이에 대해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모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로 본래는 폐기 대상이지만 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경매에 부치는 것”이라며 “예산 등의 제약이 있어 장비를 정비하거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매에 참여하는 이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강화하고 현장 설명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민단체 “포스코이앤씨, SRF 중재 철회해야”

“27배 증액은 중재 절차 취지 위배”

광주시민단체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2천100억원대 분쟁 관련, 포스코이앤씨 측에 운 영비 중재 중단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스코의 시민형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이앤씨는 중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포스코이앤씨와 광주시가 전날 대한상사중재원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실무 협의를 통한 자율 조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

다”며 “하지만 이는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 부당한 중재 절차를 정당화하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전날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을 지고 사퇴한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이 합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책임자가 사라진 합의는 의미가 없다”며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중재 중단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신청 금액을 27배 증액한 것은 중재 합의 당시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중재 절차의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중재 과정에서 ‘빛고을정정’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광주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행한 심각한 도둑질과 강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민대책위는 “이 사안은 합의부 배당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으로 민간기구의 단심 중재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대책위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자원순환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혼인빙자금품 뜯은 남매 알고보니 ‘부부’

재력이 남매로 행세하며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뜯어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부부 홍모(43)씨와 오모(54·여)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8년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 A씨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에 두 사람은 우선 부부가 아닌 남매로 행세하며 가족이 서울과 광주에서 웨딩홀을 운영

하는 재력이 집안인 것처럼 A씨를 속여 홍씨와 결혼하자고 꼬드겼다.

A씨가 결혼을 결심하자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금품을 요구, 8천여만 원을 뜯어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씨와 오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YS 결단 5·18 한 풀렸다”...오월단체, 감사패 추진

전두환·노태우 수사·특별법 제정

오는 10주기 추모식서 전달 검토

오월단체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명예 회복에 대한 공로를 기려 고 김 전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감사패 문구 및 전달 방식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추후 5·18기념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전달 시점은 고 김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오는 11월로, 장소는 서울 국립현충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패는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오월 공법 3단체는 고 김 전 대통령이 재임 중 5·18민주화운동 당시 유혈진압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하도록 한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1986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국립5·18민주묘지 조성 등에도 이바지한 점이 오월 정신 복원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집합 금지 어긴’ 목회자들 2심도 벌금형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교회 목사 A(70대)씨와 전도사 B(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2020년 8월 이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

CMYK